

# ‘정의선號’ 기분좋은 출항... G90·팰리세이드 흥행몰이

G90, 사전계약 11일간 6713대  
팰리세이드, 첫날 3468대 ‘대박’  
하반기 국내외 시장 흥행 신호탄

정의선 3세 경영체제로 전환한 현대차 동차그룹이 올 하반기 국내외 시장에서 기분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이 공들여 내놓은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과 현대차의 플래그십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가 출시와 함께 ‘흥행’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 수석 부회장이 사전기획 단계부터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며 공을 들인 제네시스 G90과 팰리세이드는 국내 시장에서 사전계약 시작과 동시에 수천대가 계약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G90은 EQ900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지만 신차급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전면부 변화를 준 외장 디자인부터 내장 소재 고급화 및 향상된 디테일의 내장 디자인, 자동 무선 업데이트와 지능형 차량관리 서비스 등 편의사양을 탑재한 정보기술(IT),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의 최첨단 장치들



인플루언서 메디슨 피셔,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총괄부회장, 연구개발총괄 양용철 부회장, 현대차그룹 디자인 담당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 브라이언 스미스(왼쪽부터)가 현대차의 새로운 플래그십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발표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오토쇼’ 행사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갖췄다. 또 국내 최초로 적용된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는 공기가 좋지 않은 지역을 지날 때 자동으로 내기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최신 기술을 대거 적용해 출시 전부터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G90은 지난 12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된 사전계약에서 모두 6713대가 계약됐다.

제네시스는 G90의 국내 상용세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어갈 전망이다. 제네시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동 시장 등에 G90을 순차 출시할 예

정이다. 특히 제네시스의 판매망도 대거 확대됐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는 30개 주 이하였지만, 이제 50개가 돼 더 적극적인 마케팅과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G90을 비롯한 G80, G70 등 세단 라인업에 오는 2021년까지 SUV 3종을 추가해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가 LA오토쇼를 통해 처음 선보인 플래그십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국내 출시와 함께 ‘대박’ 조짐을 보이고



현대차 제네시스사업부장 피츠제럴드 부사장이 G90을 소개하고 있다.

있다. 사전계약 첫날인 지난달 29일 3468대의 계약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팰리세이드의 이같은 실적은 포드 익스플로러, 혼다 파일럿 등 동급의 외산 대형 SUV의 지난해 평균 5개월치(750대×4.6개월) 판매량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지난해 연간 국내 대형 SUV 산업수요(4만7000대)의 7% 수준에 달하는 실적을 하루 만에 기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팰리세이드 높은 상품성과 넓은 실내 공간, 합리적인 가격이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팰리세이드는 동급 최대 수준의 넓은 실내 공간과 첨단 사양을 대폭 적용했음에도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만 현재 공개된 가격 범위로 보면 가장 높은 트림의 가격(디젤 프레스티지 4177만~4227만원)에 선택 가능한 옵션(727만원)을 다 더해 4904만~4954만원이 돼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는 동급 외산 SUV 대비 500만~6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팰리세이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오토쇼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가 오르고,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평상시의 2배가 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 화양동 롯데시네마에 ‘3D 오닉스’

건대입구관에 ‘슈퍼S’관 오픈

삼성전자가 LED 스크린 ‘3D 오닉스’를 적용한 극장 상영관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1일 서울 화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관에 ‘슈퍼(Super)’관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SuperS는 국내 첫 3D 오닉스를 사용한 상영관이다. 10m 크기에 최대 300니트 밝기, 4K 해상도를 구현했다. 오디오 시스템에는 하만의 JBL 브랜드를 적용했다.

또 삼성전자는 SuperS에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을 기반으로한 업무 솔루션을 적용했다. 로비에는 갤럭시S4와 ‘녹스’ 기반 키오스크를 설치해 음성 기반 티켓 구매 및 매점 메뉴 주문을 가능케 했다.



삼성전자는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 오닉스 스크린을 적용한 SuperS관을 오픈했다.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는 기어 S3와 갤럭시워치 기반 현장관리시스템을 적용했다. 직원 간 소통을 돕고 업무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오닉스 스크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유명 디자이너들이 블루밍 데일스 LG 시그니처 매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 LG전자 美 블루밍데일스百에 시그니처 매장

LG전자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에 시그니처 매장을 성공적으로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는 블루밍데일스에서 공식 판매하는 첫 생활가전 브랜드를 기록하게

됐다.

LG전자는 앞으로 프리미엄 유통채널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더 많은 고객에게 시그니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 삼성·애플에 뒤지지 않는 ‘카메라 성능’

IT 체험기

샤오미 ‘포코폰F1’

‘가성비’ 무기로 국내 소비자 공략  
노치 디자인 취향따라 변경 가능

외산폰들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샤오미, 화웨이, ZTE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제품을 무기로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그중 지난 19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샤오미 ‘포코폰 F1’을 사용해봤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45 칩셋을 탑재했다. 삼성의 갤럭시노트9와 LG V40 씽큐와 동일하다.

배터리는 4000mAh(밀리암페어시)

의 대용량 배터리를 갖췄다. 갤럭시노트9와 같이 아이폰XS보다는 좋은 배터리 성능을 갖췄다. 또한 퀵차지 3.0을 지원한다.

포코폰F1은 언어 선택, 비밀번호 설정 등을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노치 디자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외관 부분에서 전면부는 6.18인치, 2246×1080 해상도의 LCD 대화면을 탑재해 시원하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하단 베젤(테두리)은 다소 두껍다는 느낌이 들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이 카메라의 개수를 늘리는 등 카메라에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카메라를 중점적으로 사용해봤다. 포코폰F1은 후면 1200만·500만화소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포코폰F1의 후면카메라는 기본적으로 AI카메라로 실행된다.

AI카메라가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해 그에 맞는 필터를 추천해줘 최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총 206개의 장면을 연출한다.

나무를 찍으려고 하면 나뭇잎 모양, 도시의 건물을 찍으려고 하자 건물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필름’, ‘따스함’, ‘차분함’ 등 13개의 필터를 설정해 촬영할 수 있고 인물 모드, 파노라마 모드, 사각 모드 등도 지원한다.

95만7000원의 갤럭시S9, 136만4000원 아이폰XS와 비교해 촬영을 해본 결과 카메라 성능 부분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이 크지 않았다.

전면에는 2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포코폰 F1은 여태까지 써본 많은 스마트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셀피 결과물을 보여줬다. 단순히 예쁘고



홍화면. /구서윤 기자

멋진 사진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진이었다.

포코폰F1은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통해 잠금 화면을 해제할 수 있다. 지문인식은 기자가 사용 중인 갤럭시S9보다 더 빨랐다.

동영상을 1시간 이상 연속 재생했지만 뜨거워진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발열을 잡아주는 수냉식 쿨링 시스템이 장착됐기 때문이다.

방수, 방진 적용이 안됐고 NFC(근거리 무선통신) 지원이 되지 않는 점 등은 아쉽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훌륭한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느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